

하루를 시작하며



고춘욱  
시인

'싸움에는 이겨야 멋'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게 한결 더 멋이 되는 일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 마을에선 하늘에 만들어져 그제 일년 내내 커다란 한 뼘보기가 됩니다.

승부는 끈질겨야 하는 거니까 산해의 끈질긴 것 가운데서도 가장 끈질긴 것은 바닷 속의 민어 배 속의 부레를 꺼내 풀을 꿰고, 또 승부엔 날카로운 서술의 날이 잘 서 있어야 하는 거니까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새끼 파리를 모아 쥘어 서릿발같이 자자란 날들을 수없이 만들고, 승부는

실패의 미학

연설에 우선 몇 번이고 거듭 번갈아서 먹어야 함초.

그렇지만 선수들의 연자세의 그 연실들 끝에 매달은 연들을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우에 날리고, 막상 승부를 겨루어 서로 걸고 재주를 다하다가, 한쪽 연이 그 연실이 끊겨 나간다 하더라도, 패자는 "졌다"는 탄식 속에 놓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방된 자유의 끝없는 항행 속에 비로소 들어섭니다. 산봉우리 위에서 버둥거리던 연이 그 끊긴 연실 끝을 단 채 하늘 멀리 까물거리며 사라져 가는데, 그 마음을 실어 보내며 '어디까지라도 한번 가 보자'던 전 신라 때부터의 한결 같은 유원감(悠遠感)에 젖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생활에 실패해 한결 없는 나그네길을 떠나는 마당에도 보따리의 먼지 털탈 털고 일어서서는 끊겨 풀려나가는 연같이

가뜩히 가며, 보내는 사람들의 인사 말도 "팔자야 내놈 팔자가 상팔자구나"이쯤 되는 겁니다.

미당의 '질마재신화'에 나오는 '지연(紙鸞) 승부'다. 질마재사람들의 연날리기 풍경에서 그에 담긴 인생관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파이란 하늘 위를 가오리연, 방패연, 발연, 나비연, 제비연 등이 유영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그리움이고, 동경이고, 이상향인. 그 멋도 멋이지만 지는 것이 더 멋있는 연날리기시합은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정경이다. 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그 소리는 지극히 그윽해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돌아봐주는 사회인정에 기대 사는 예소한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흡사 인성을 상실한 제국의 총이 들어오는 걸 내다보고 아주 사라져 버렸다는 마야족, 그 패자의 언어인 듯 쓸쓸하다.

반면에 연날리기 시합과는 달리 사람이란 연줄에 매달려 온갖 아픔을 떨어가며 대기업에 빌붙어 돈으로 풀을 먹고, 협잡이라는 사금파리에 날을 세워 덧붙여가며 상대의 연줄을 기어코 끊어버리는 요즘 권력의 승부사는 권력을 되돌려 자신을 지지해준 연줄을 끊어내느라 광란의 칼을 휘두르는 과오의 솜씨까지 탁월하게 보여준다.

바로 총선이다. 정작 새 역사를 쓰는 건 휘황찬란한 공약으로 도배한 총을 든 승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를 조종할 방식, 튼튼한 연줄을 감고 있는 민(民)이라는 실패다. 새해에는 지난 실패를 거듭 살펴 연줄을 잘 풀어내는 멋진 연날리기 시합 한번 제대로 붙어 볼만도 할 일이다. 물론 지는 것이 아름다운 실패의 미학까지 곁들여서 제주신화를 써본다면 금상첨화겠다.

사설

다함께 다시 뛰며 '희망찬 새해' 만들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을 마음은 한결같은 겁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마음이 설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 출발하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대립으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난관입니다. 지난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사 검토위원회 활동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질 끝에 출범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도 발목이 잡히는 형국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제2공항 특위 활동 예산이 거부되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으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막막합니다.

4·3특별법 전 현 진전없이 표류

제주4·3특별법 역시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또 다시 새해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4·3특별법 등은 제주에서, 서울에서 각종 집회를 통해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는 등 이들의 치유에 나섰는데 정작 국회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실감없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경고등 켜진 제주경제 큰 위기

제주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지역내총생산

여전히 '삶의 질' 문제 개선 안돼

다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큰 일입니다. 교통환경은 시도 때도 없이 정체되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하수 처리는 이미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됐습니다. 청정제주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국제관광도시의 치안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제주는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새해가 더욱 더 걱정입니다. 경제단체나 경제연구기관의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 불황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살림살이가 파탄한데 경제마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했습니다. '희망찬 새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보가 그래서 새해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제주, 함께하는 제주'로 정한 이유입니다.

열린마당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심과 안전의식으로



강지현  
서귀포소방서 동흥119센터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의 화재원인(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은 누전 및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3.9%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을 보면 교사 삼아 전통시장 시설의 관계인은 전기 난방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올바른 사용과 미사용 플러그 뽑아 두기, 노후화된 배선 교체, 난방기구 주위에 가연성 물체 두지 않기 등의 화재 예방수칙을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다.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 라는 인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다.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서도 전통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선정해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계인 모두가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도 안전하고 따뜻한 전통시장을 기대해 본다.

뉴스-in

"2020제주교육, 새로운 100년 시작"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신년사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0 제주교육,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고 선언.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100년의 물꼬를 만들겠다"며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리더십 혁신의 가시적인 결실을 이루겠다"고 다짐.

이어 "새 학년의 학교 현장은 더욱 따뜻할 것"이라며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포기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이도2동장 후보자 비공개

○...제주시가 이도2동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자를 비공개해 논쟁.

제주시 이도2동 주민추천위원회는 지난 30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이도2동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도2동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추가 질의 등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동장 후보자를 선정, 제주시에 통보했으나 지원자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주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을 이도2동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누가 지원을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고대모기자

팽귤수영대회 입수자 증가

○...새해 첫날인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20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팽귤수영대회 입수자와 관람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서귀포시관광협회의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입수자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보다 187% 증가한 416명으로 집계돼 입수자 가족 등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회 20주년 맞아 특별히 기념메달도 증정할 예정"이라며 "사전접수 결과 입수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메달·타자를 대상으로 이도2동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추가 질의 등을 거친

**곽금초등학교 총동창회**  
**2020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여러분의 가정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1월 5일(일) 17:00
- 장 소 : 메종글래드호텔 2층 (구.그랜드호텔)
- 참석대상 : 곽금초등학교 전동문 및 주요인사
- 내 용 : 2020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 참 가 비 : 1인 1만원  
-참가비는 제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자진해서 납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회기 회장, 총무님께서는 기별참석인원 파악바랍니다.
- 연 락 처 : 사무처장 박재덕 010-4696-1889  
총무부장 김홍대 010-3696-0166

**곽금초등학교 총동창회**  
회 장 진 운 립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r.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다!**

**결혼 부교 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선 '최다' 기록

- 도내 언론사 최초 '이코노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주간농업농촌소식**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 다 음 -

- 견 명 :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 사 업 량 : 과수 국내육성 신 품종 비교 전시회 조성 외 74사업
- 자세한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https://agri.jeu.go.kr/) 또는 4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내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상담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760-7721), 근교농업팀 (☎760-7751) 기술보급팀 (☎760-7761)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760-7821), 갈굴지도팀 (☎760-7831), 기술보급팀 (☎760-7841)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760-7621), 발작물팀 (☎760-7631), 기술보급팀 (☎760-7641)
-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760-7921), 원예기술팀 (☎760-7941), 기술보급팀 (☎760-785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12)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